나라사랑

든든한 보훈 | 국가보훈처

narasarang.kr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월간) 국가보훈처 ☎ 1577-0606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중점

올해 보훈예산 2.7% 인상된 5조8천억원…보상금·수당 3% 인상

전상수당 9만원으로 인상

참전, 무공, 4·19공로수당 각각 월 2만원 올려

2021년 보훈예산은 지난해 5조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 증액된 5조8,35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은 지난해 보다 평균 3% 인상된 4조4,637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달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부터 적용된다.

〈2면에 상세 보상금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된 올해 예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강화

올해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은 각각 3%가 인상됐으며, 간호수당은 5% 인상됐다. 이와 함께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은 월 2.3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했다.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월 2만원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월 3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랐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12만원 인상된 것이다.

□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올해 100개소 확대하며, 2022년까지 총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사업, 보훈병원 리모델링, 보훈요양원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연차계획에 따라 올해 50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와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완공된다. 이어 내년에는 대전·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등이 완료되며 2023년에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 기타 장례지원, 교통이용 개선

올해부터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전체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한다.

교통시설 이용 개선도 추진한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PC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2022년 시행을 목표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은 수권유족에게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 국립묘지 적기 확충 추진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제주와 연천 지역의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280억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221억원(총사업비 492억원)을 편성했고, 5만기 규모로 2025년 완공 예정인 연천현충원은 올해 59억원(총사업비 979억원)이 편성됐다.

〈3면으로 계속〉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올해부터 정부행사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1926년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정부행사로 거행키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개최될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부기념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점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의지를 밝힌 독립만세운동으로, 학생 주도로 일어나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던 사건이다.



지난 2019년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3주년 6·10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모습.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됐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전·무공·전상수당 등 인상…국가 위한 희생 '예우'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합 계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6,180	2,325	8,505
		4등급	3,290	1,920	5,210
		5등급	2,602	1,725	4,327
	건국포장		1,864	1,575	3,439
	대통령표창		1,225	1,575	2,800
유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유족	2,370		2,370
	건국훈장 4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유족	1,975		1,975
	건국훈장 5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유족	1,604		1,604
	건국포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유족	1,145		1,145
	대통령표창	배우자	780		780
		기타유족	765		765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47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존 등록자)

(단위 : 천원)

ㅇ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 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 1항	고 령	3,165	97	2,374	5,636
		일 반	3,165	–	2,374	5,539
	1급 2항	고 령	2,985	97	1,642	4,724
		일 반	2,985	–	1,642	4,627
	1급 3항	고 령	2,857	97	1,000	3,954
		일 반	2,857	–	1,000	3,857
	2 급	고 령	2,540	97		2,637
		일 반	2,540	–		2,540
	3 급	고 령	2,374	97		2,471
		일 반	2,374	–		2,374
	4 급	고 령	1,992	97		2,089
		일 반	1,992	–		1,992
	5 급	무의탁	1,650	274		1,924
		고 령	1,650	97		1,747
		일 반	1,650	–		1,650
	6급 1항	무의탁	1,506	274		1,780
		고 령	1,506	97		1,603
		일 반	1,506	–		1,506
	6급 2항	무의탁	1,386	274		1,660
		고 령	1,386	97		1,483
		일 반	1,386	–		1,386
	7 급	무의탁	496	274		770
		고 령	496	97		593
		일 반	496	–		496
	*간호수당		1급 1항 2,631	1급 2항 2,532	1급 3항 2,434	2급 841
	*전상수당		90			
재일학도의용군인		무의탁	1,386	274		1,660
		고 령	1,386	97		1,483
		일 반	1,386	–		1,386
4·19혁명 공로자			351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2. 7. 1. 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 상 금	중상이부가수당	합 계
상이자	1급 1항		3,165	2,374	5,539
	1급 2항		2,985	1,642	4,627
	1급 3항		2,857	1,000	3,857
	2 급		2,540		2,540
	3 급		2,374		2,374
	4 급		1,992		1,992
	5 급		1,650		1,650
	6급 1항		1,506		1,506
	6급 2항		1,386		1,386
	6급 3항		930		930
	7 급		496		496
	* 간호수당		상시 2,631 / 수시 1,755		
	* 전상수당		90		
	*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전몰 · 순직	1,668		1,668
		상이 1~5급	1,446		1,446
		상이 6급	530		530
	부 모	전몰 · 순직	1,638		1,638
		상이 1~5급	1,422		1,422
		상이 6급	503		503
	자 녀	전몰 · 순직	1,933		1,933
		상이 1~5급	1,678		1,678
		상이 6급	766		766
	*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유족	배우자	전몰 · 순직	무 의 탁	1,668	274	1,942
			무의탁부모부양	1,668	149	1,817
			고 령	1,668	149	1,817
			일 반	1,668	–	1,668
		상이 1~5급, 6급 상이사망	무 의 탁	1,446	274	1,720
			무의탁부모부양	1,446	149	1,595
			고 령	1,446	149	1,595
			일 반	1,446	–	1,446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무 의 탁	530	274	804
			무의탁부모부양	530	149	679
			고 령	530	149	679
			일 반	530	–	530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 · 순직	무 의 탁	1,638	274	1,912
			독자사망	1,638	274	1,912
			고 령	1,638	97	1,735
			일 반	1,638	–	1,638
		상이 1~5급, 6급 상이사망	무 의 탁	1,422	274	1,696
			고 령	1,422	97	1,519
			일 반	1,422	–	1,422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무 의 탁	503	274	777
			고 령	503	97	600
			일 반	503	–	503
		* 2명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 (성년 장애) 자녀	전몰 · 순직		1,933	–	1,933
		상이 1~5급 · 6급 상이사망		1,678	–	1,678
		6급 비상이 · 7급 상이사망		766	–	766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자녀수당				제적자녀 : 1,387(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180 신규승계자녀 : 347(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ㅇ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400, 화랑405, 충무410, 을지415, 태극420
참전명예수당	340

ㅇ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1,010	745	489
후유증2세환자수당	1,799	1,398	1,123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 상 금	중상이부가수당	합 계
상이자	1급 1항		2,216	1,662	3,878
	1급 2항		2,090	1,150	3,240
	1급 3항		2,000	700	2,700
	2 급		1,778		1,778
	3 급		1,662		1,662
	4 급		1,395		1,395
	5 급		1,155		1,155
	6급 1항		1,055		1,055
	6급 2항		971		971
	6급 3항		651		651
	7 급		348		348
	* 간호수당		상시 2,631 수시 1,755		
	* 부양가족수당 (6급이상)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령수당 (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사 망	1,168		1,168
		1~5급 유족	1,013		1,013
		6급 유족	371		371
	부 모	사 망	1,147		1,147
		1~5급 유족	996		996
		6급 유족	353		353
	자 녀	사 망	1,354		1,354
		1~5급 유족	1,175		1,175
		6급 유족	537		537
	*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 제매 200		
	* 고령수당 (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훈장	1~3등급	3,268	상이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유족 보상금 승 계	1,127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장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일학도의용군			1,127
		1~3등급 기타유족	2,200				
		4등급 유족	1,989				
		5등급 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평화 정착, 미래 번영 위한 국민통합 토대 만들 것”

제31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취임



제31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으며,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바 있다.

황 처장은 국가보훈처 주요 간부들과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TV나라사랑을 통해 생중계된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 집무에 들어갔다.

이날 황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수준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에 맞는 의료·요양·안장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도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뉴노멀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보훈 역시 그에 맞춰 철저한 업무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어 “독립·호국·민주의 각 분야별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보훈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미래 번영을 위한 국민통합 시대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철 신임 처장 취임사(요약)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여건에서도 정부기념행사를 잘 치러냈고, 독립·호국·민주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수준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에 맞는 의료·요양·안장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도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국가보훈처의 국제보훈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유엔참전국 대표회의 등을 통해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보훈, 이른바 ‘K-보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도 체감하셨듯이,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뉴노멀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보훈 역시 그에 맞는 업무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양과 예우 등 국가보훈처의 여러 업무에 있어 이러한 비대면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기존의 대면 업무 역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날 피땀을 흘리고, 나아가 소중한 목숨까지 바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답하고 국가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더욱 번영된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살피고, 국민 역시 보훈의 든든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각 분야별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고 세심하게 살펴야합니다. 보훈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미래 번영을 위한 국민통합 시대의 토대를 닦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보훈입니다.

저는 이러한 보훈을 위해 여러분과 소통하는 처장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은 물론 직원, 그리고 보훈업무 종사자 여러분과 자주 대화를 갖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함께 논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국가보훈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는 처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여러분과 가족 모두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뜻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훈예산 2.7% 인상 확정

〈1면에서 계속〉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한 묘지별 안장시설 확충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2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묘지별로는 올해 완공 예정인 대전현충원에 37억원, 2022년 완공 예정인 괴산호국원에 5억원, 4·19민주묘지에 1억원이 편성됐고, 2023년 완공예정인 이천호국원에 148억원, 영천호국원에 19억원, 임실호국원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국립묘지 외의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중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하고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기념시설 건립

올해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해 국내·외 독립·호국 등 7개 기념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615억원 편성했다.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31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기념관은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9,458㎡ 규모로 지어진다. 이와 함께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6개 사업에도 301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미국 워싱턴D.C ‘추모의벽’ 건립과 미국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에 지원되는 270억원이 포함됐다.

국내의 경우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무안 참전기념비 건립, 세종국가보훈광장 건립, 함평 4·8만세운동기념관 건립 사업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나라사랑 narasarang shinmun
발행일 2021년 1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황기철
대표전화(정책·민원·상담) 1577-0606 편집·배포 044)868-0745·6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간 1963년 9월 19일 홈페이지 www.narasarang.kr

謹賀新年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보훈, 민족공동체 생존·번영으로 수렴

광복회장 김 원 웅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광복회의 2대 회훈은 '민족정기 선양'과 '통일조국 촉성'입니다. 전자를 '친일잔재청산 노력'의 바탕이라 한다면, 후자는 외세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통일운동의 근간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조선의열단 박재혁 의사와 대한광복회 박상진 의사가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회는 전국에 세워져 있는 친일인사들의 기념시설을 조사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를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서거 100주년이 되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선열들을 선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표절 시비와 친일 등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애국가를 대신하여,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아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이제는 보훈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보훈의 가치는 '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족을 외면하는 호국을 넘어서고 그 의미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 이후 역사의 고비마다 새겨진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은 모두 친일반민족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자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복회는 신축년 새해에도 독립운동정신을 전환기의 시대정신으로 삼고, 민족·민주단체의 중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남북 간의 민간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의 가치 존중받는 풍토 위해 노력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김 덕 남



2021년 신축년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회는 지난 1951년 창설된 이후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애국단체로서 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저는 2013년 회원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설립하고 정신적·심리적 재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은 6월에 개강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했고, 상이군경 체육대회도 각 지부별로 소규모로 치러야 했으며, 창작예술제와 베트남 의료지원과 한국전쟁참전 유엔군 전상자 초청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핵심 사업을 위축시켰던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회원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 회장직을 맡아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장직을 수행하며 꾸준히 우리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도 2021년 보상금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연일 찾아가 실질적인 보상금 5% 인상을 요구하는 등 단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했습니다만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보만리(牛步萬里),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는 사자성어처럼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은 회원들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고귀한 가치로서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해에도 쉬지 않고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발전, 복지증진 위해 슬기롭게 대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김 영 수



희망찬 신축년 새해 아침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은 국가도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 조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조직과 구성원은 역경을 딛고 부단히 앞을 향해 나아갔으며 이것은 바로 우리 회원 모두의 화합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우리 회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수당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이를 인상하는 일이며, 위탁진료 연령 70세 인하, 보훈병원 진료비 90% 감면, 수원 보훈복지타운과 보훈원 입소 등 보훈사각지대 현안을 해소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을 올해는 관련 법률과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의한 후에 힘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보훈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어려운 여건을 딛고 시도지부를 방문하면서 본회 활동소식을 전하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특히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일부 회원들이 정성껏 가꾼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가옥이 파손된 회원들에게는 본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모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력이 강하고 근실하다는 흰 소처럼 이 난국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조직의 발전과 우리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이 넘치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든든한 보훈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강 길 자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7월부터 5년간 에티오피아 현지 미망인 50명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생필품, 의료용품 등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 작년 추석 명절에는 에티오피아 미망인 손자녀 중 한국유학생 10명에게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기념품을 우리 회의실에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미망인회가 2020년 9월 제3회 사회공헌활동 우수보훈단체로 선정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수상금 150만원으로 모금에 참가하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목걸이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망인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숙원사업인 전몰·순직 미망인에 대한 보상금 인상, 자녀 1인에 대한 보상금 승계, 참전유공자 보다 나은 수준의 의료비 감면 등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원사업은 전 회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에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 국가보훈처 정책 브랜드 '든든한 보훈'은 우리 미망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회원들께서 단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새해 뜻하신 바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교과서 통해 다음세대 애국심 고양해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박 운 욱



존경하는 보훈가족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저희 재일학도의용군들이 6·25전쟁에 참전한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저희 노병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사라져 가기에 지난해에는 2002년에 발간된 '재일동포 6·25참전사'를 '재일학도의용군 6·25전쟁 참전사'로 재발간하여 대학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비록 육체는 언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고 그 애국심을 실천으로 옮겼던 우리의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책에 고스란히 남아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본부에서는 참석을 못하였지만 83명의 동지들이 희생된 '장진호전투 전사자 추모위령제'를 일본 동경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며, 일본에 남아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국충정의 본보기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참전기인 '조국이 부른다'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재수록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를 통해 애국심을 배우고 남북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우리 단체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힘을 합쳐 극복해내지 못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비극이라 불리는 코로나19 위기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화·혁신,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

4·19민주혁명회장 박 종 구



설렘과 기대로 신축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은 국민 모두가 더 크게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4·19혁명 정신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이루어 코로나 종식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유례없이 빠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저력으로 2021년 새해를 4·19혁명 60주년을 지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4·19혁명이 단지 장엄했던 지난 역사가 아니라 현재형이자 미래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19민주혁명회 역시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19혁명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4·19혁명의 주역이었던 회원 대부분이 80세가 넘는 고령에 접어들어 회원들의 노후의 삶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실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체 수익사업을 비롯한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호국·독립유공자와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격 높은 보상과 예우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유공자의 발굴을 비롯하여 국립4·19민주묘지의 정비,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새로운 길을 찾고 그 변화의 길에 앞장서는 공법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4·19 정신 계승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정 중 섭



희망찬 신축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의 서광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역사는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1960년 그날의 민주영령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부정과 불의에는 반드시 항거하며, 부패한 권력은 민중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과 함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4·19혁명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정의의 4·19혁명 정신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 4·19혁명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으로 4·19혁명의 역사가 영원토록 뻗어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4·19혁명희생자유족회는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단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단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국가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듯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그분들의 정신과 뜻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혁명 유공자 예우와 4·19혁명 기념일의 국경일 지정 등 현안 문제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해도 시린 바람을 견디고 따사로운 훈풍이 가득한 건강하고 행복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한 단계 더 도약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박 종 길



존경하는 무공수훈자회 회원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된 한 해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이 제한되었고,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장례식장 출입이 제한됐지만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증정 9,000여 회, 태극기 증정 10,000여 회, 장례의전 선양단 조문 2,300여 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해드렸습니다.

제5회 장진호전투영웅 추모행사는 문예작품공모전과 장진호전투 전사 심포지엄, 사진 전시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열일곱 번째 지부를 설립했고, 12월에는 서울 강서구에 '호국보훈회관'을 개관하여 본부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중앙회관 마련이라는 12만 회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길러온 인내심과 애국충정,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로 새해에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우리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회갑 4·19, 혁명정신 국민께 다가가야

4·19혁명공로자회장 강 영 석



4·19혁명공로자회 회원 여러분, 국가유공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했을 때 많은 혁명 관계자들은 부푼 가슴에 큰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흘러간 세월과 함께 젊은 시절의 정열과 정의심이 새삼스럽게 구름처럼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12년간 계속된 독재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학생들은 결코 정권에 욕심을 낸 추세배(追勢輩)이기를 거부하고 혁명이 성공한 후 학원으로 돌아갔으며 야당이 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군사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은 무능한 정권의 말로를 보여준 극명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정의, 4·19혁명정신은 허망하게 군홧발에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4·19혁명은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민주권운동의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혁명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회갑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기에서 회갑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학식,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혁명정신 역시 지금부터 새로운 큰 걸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금년은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했던 미포상 유공자들이 대거 건국포장을 수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공로자들이 건국포장 수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분의 예우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사랑 한마음으로 투철한 국가관 실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 이 종 열



2021년 풍요와 여유의 의미가 담겨있는 하얀 소띠의 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옛 속담처럼 2021년 신축년은 어김없이 우리들 앞으로 성큼 밝아왔기에 새해를 코로나19의 극복과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과거 국가수호를 위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특수임무전사자의 피 끓는 애국 혼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법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본회 임직원 모두는 6,000여 생존회원과 유족들을 대표하여 특수임무전사자 및 생존자,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잊혀가는 영웅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국을 위한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투철한 국가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열망했던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통일한국으로 도약을 거듭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정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춰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새해에는 마스크 대신 반가운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웃을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회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는 가슴 속에 늘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용기 기울여 위기 극복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 황 규 승



희망찬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 한해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년 치러왔던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많은 활동제약이 생겨 회원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난 한해는 태풍으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회원 여러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전우회는 태풍 및 수해피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며 해외지부 회원 및 교민들의 마스크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8,000장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부 및 지회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금지원과 자체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지원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매일 고엽제 전우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과 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노력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엔 더 많이 나누고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엔 코로나19의 극복과 재도약의 원년으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반드시 성사시켜 고엽제 전우들의 복지 증진과 명예선양을 위한 해가 될수 있도록 집행부와 이사, 시·도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모두 함께 노력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참전용사의 다짐' 윤리강령으로 실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장 노 무 식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유공자 회원들은 어느덧 90세의 고령에 이르렀기에 후세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할 중차대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첫째, 후자녀 회원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금년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후자녀 회원화 입법'이 기필코 성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회원과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문제입니다. 6·25참전용사들과 그 유가족들도 타 보훈단체처럼 보훈혜택을 당당하게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6·25참전 회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유공자회원들이 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적어도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본인 사망 시에는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혈맹으로 맺어진 유엔참전국가들과 협력과 친목을 통해 6·25전쟁의 역사성을 확실히 공유하면서 그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유공자회는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낸 대한민국 최고의 호국안보단체로서 회원 스스로가 갖추어야할 실천덕목으로 정한 '6·25참전용사의 다짐'은 회원들의 윤리강령이며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덕목임을 상기하시고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유공자회 모든 회원은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낸 6·25참전 호국영웅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도 숙원사업들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각오와 단합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취약 계층에 방역 마스크 110만장 전달

자체 예산 4억원 투입…3개 보훈단체와 보훈병원 등 지원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는 지난달 16일 오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이군경회 연로 회원,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3개 단체와 6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kf94 방역마스크 110만장을 전달했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단체라는 자부심으로 최근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사회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에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덕남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고 필수품이 됐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 필수품마저 넉넉히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분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상이군경회 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원키로 했다"면서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상이군경회 김덕남 회장(가운데)이 국가유공자 단체에 방역마스크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회장 이종열)가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 6층(강동구 길동 350-1) 호국영웅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사진〉

호국영웅보훈회관은 올해 입주할 예정인 6·25참전유공자회와 함께 보훈단체의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개 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 지난달 28일 특수임무유공자회의는 이전을 완료했으며, 대표연락처(02-737-8240)는 이전과 동일하다.

새로 입주하는 회관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 공법단체 설립

5일 단체설립법 개정안 공포

"설립 과정 및 정착 지원 최선"

5·18민주화운동 41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공법단체가 설립된다. 이로써 국가보훈처 소관 공법단체는 기존 13개 단체를 포함해 16개로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9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로 41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근거 외에도 각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각 단체는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 후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법단체 설립과 동시에 그간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왔던 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그간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왔던 3개 단체는 각각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 본격 단체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5·18예우법 체계에 따라 공법단체의 자격을 갖춘 회원이 명확해지고 그 숫자도 조정됨에 따라 회원 가입 및 활동안내 등을 통해 향후 활동을 위한 역량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연락처는 부상자회(062-383-1518), 유족회(062-383-5180), 공로자회(전 구속부상자회 062-383-5181).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1년 만에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초기에 단체 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謹賀新年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따이한' 정신으로 영예와 권리 찾기 노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 이 화 종



여러분! 새해를 맞아 반갑습니다. 호국보훈회관에 새로 둥지를 튼 공법단체 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는 56년 동안 찾지 못했던 우리들의 영예와 권리 되찾기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고, 6개월간 본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가 보장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전우회', '화합으로 발전하는 전우회'를 만들고자 '내부조직 개편' 및 '인사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였습니다.

새해 최우선 과제는 ▲전투근무수당 특별보상 성사 ▲'양민학살' 음해 대응 결실 ▲전국 시·도지부 워크숍 순회를 통한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러한 현안 중 전투근무수당의 경우 5개월 전부터 전국 25개 관련 추진위원 단체를 취합, 고엽제전우회와 함께 힘을 합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젠 중앙회에서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회는 또 전국적으로 환경봉사에 앞장서면서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를 적극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유가족 승계, 특별법 제정, 해외파병의 날 정부 기념행사 승격, 의료복지지원 수준 제고 등 회원의 복지와 권리·명예 찾기를 최우선 목표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단체의 현실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해 '따이한' 정신을 발휘해 이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제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지향의 보훈, 갈등 치유와 통합의 길 모색… 더 크고 깊은 미래, 보편보훈이 지향할 방향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물결들이 어떻게 구비치며 오늘의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및 6·25전쟁 70주년을 지나며 우리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 굴곡들이 갖는 의미를 깊이 되새겼다. 지난 역사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보훈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진보의 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나라사랑신문〉은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이찬수)〉과 함께 이 흐름을 이어 새해 연간 기획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을 통해 미래보훈, 새로운 가치의 보훈을 심층 탐구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2년간 잇단 굵직한 행사들을 기념하며 국가와 국가의 위기극복, 그리고 오늘을 있게 한 공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헌신과 공헌들이 오늘의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근간임을 확인했다. 이제는 그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인 '보훈'이 새로운 가치로 거듭날 필요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보훈에 대한 질문, 보훈의 가치

보훈은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좁게 해석돼 보상과 복지라는 지원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는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여 힘 있게 만들며, 미래로 전진하게 하는 동력으로 일깨우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는가. 곳곳에서 많은 담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로 묶여지지 못했고, 정치적이거나 비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설익은 채로 유실되기도 했다. 그래서 보훈과 국가유공자는 '그들만의 관심사'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돌이켜 보면 '왜 보훈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 모자랐고, 보훈의 가치를 새겨 함께 나누려는 노력은 한계에 부딪쳤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역시 보훈의 적극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거쳐, 전쟁의 와중에서 스스로를 지켜냈고,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내며 비로소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국가로 일어섰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르게 세우는 모든 과정에 주체로서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희생과 투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목숨 바친 투쟁의 순간순간을 잊을 수 없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기적을 일궈낸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고 우리에게 미래나 새로운 전진은 불가능하다. 이 피맺힌 장엄한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도 있고, 4차 산업과 인공지능(AI)도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인의 삶도 있다. 오늘에 매몰돼 우리는 보훈이 역사이자, 생활이자, 미래임을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현재-미래, 다시 생각하는 보훈

이제까지 보훈은 과거와 가까웠다. 독립유공자와 후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그들은 '과거'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다. 그 과거를 보상하는 것이었으며, 과거를 예우하는 것이었다. 최선을 다해 예우한다고 했으나 과거는 현재나 미래와 대화하는 데 부족했으며 그 연결고리는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보훈은 형해화하고, 그분들의 분투는 역사책에 메마르게 기술될 수밖에 없는 듯 보였다.

더 커다란 보훈
더 든든하고 힘 있는 보훈,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가치로
다시 태어나야

그런가. 그 과거는 단순한 지나버린 세월에 불과한가.

분명한 것은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을 빼고 대한민국을 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945년 남들이 해방시켜준, 선진국이 만들어준 거푸집에 세워진 대한민국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풍찬노숙을 견뎌내며, 목숨을 건 의열투쟁과 국내진공을 위한 치열한 준비에 힘입어 세워졌다. 그 상징이자 실체인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법통이며 뿌리이고 근거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년여의 전쟁을 치렀다. 정규군에서부터 학도병, 노무부대까지 목숨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냈다. 그 잿더미가 화려한 대한민국이 된 것도 전쟁에서의 사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들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낸 대한민국은 독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냈기에 '대한민국'이다. K팝에서부터 K컬쳐, K방역까지, K(Korea)에는 '민주 대한민국'의 품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가 여전히 인권 후진국, 장기 집권의 나라, 불안한 정치정세에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였다면 '존중받는' '부러운' 대한민국과 문화는 없었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땅을 사랑한 든든한 애국자들과 수많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로 일으켜 세워진 나라이다. 그 헌신은 미래로 향해야 한다. 2021년의 대한민국이 가진 과제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국민통합, 남북의 평화 공존과 번영, 동북아 및 세계와의 당당하고 바른 관계는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K보훈, 나라사랑의 깊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과 자부심으로 하나가 된다. 그 힘으로 발전의 동력을 삼고, 공동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발전의 동력을 뭉뚱그려보자면 '나라사랑'이라는 정신 혹은 이념으로 수렴될 수 있다. 보훈의 핵심 가치인 나라사랑은 미래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인 것이다.

그것은 우선 공동체 대한민국을 묶는 이념이자 가치가 된다.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구성원을 지켜주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자부심이 되기도 하며, 때로 눈물 나는 동질감의 확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또 위기 상황이 오면 똘똘 뭉쳐 함께 대응하고, 나를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되살아난다.

보훈과 나라사랑은 또 세상의 평화와 구체적 역내의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독립이든 호국이든 민주든 함께 더 중요하다 믿는 가치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은 평화를 위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된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가치 역시 여기서 나온다. 한때 총을 겨눴지만 이제는 공존, 공생, 번영의 미래를 함께 나눌 각각의 중심이다. 우리는 함께 한 공간을 나누며 독립운동을 해왔던 동지였으며, 지금은 한반도의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한 민족의 다른 면모이다.

더 역동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K보훈'으로 불리는 보훈외교를 빼놓을 수 없다. 22개 유엔참전국의 든든한 동행은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25전쟁 70주년을 넘어서면서 추진했던 보훈부 장관회의 등은 새로운 협업외교의 전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단체들의 활발한 해외 활동 역시 돈으로 살수 없는 민간외교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면서 징송을 받고 있다.

이제 보훈은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새로운 발견으로 비대면의 시대, 나 홀로 생존의 시대를 극복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가치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보훈은 과거에서 비롯됐으나, 오늘을 바꾸고 있으며, 내일로 향하는 소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더 커다란 보훈, 더 든든하고 힘 있는 보훈을 모색해야 할 오늘이다.

〈특별취재반〉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 평화를 향하는 보훈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관련한 토론이 활발해졌다. 그와 관련한 정책과 '평화'를 향한 각계의 노력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쳐졌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위시해 남북 간에 크고 작은 대화들이 계속됐다.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한반도 평화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는 인식도 적잖이 확장되었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해내는 일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보훈'이 한반도 평화의 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보훈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국가보훈기본법」 제1조)'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분명히 따뜻한 공정사회, 든든한 평화국가로 나아가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보훈은 어떤 논리와 과정으로 평화국가의 길에 공헌하게 되는 것일까.

〈글 싣는 순서〉

1. 평화를 향하는 보훈
2. 독립-호국-민주의 이해와 가치
3. 국가유공자, 정체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4. 새로운 지평, 보훈외교
5. 보훈과 복지
6. 보훈과 여성
7. 보훈과 공공의료
8. 보훈과 문화
9. 통일시대를 향한 보훈
10. 보훈의 미래가치

평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평화는 정적(靜的)으로 규정하면 '갈등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동적(動的)으로 규정하면 '갈등이나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현실에서 갈등이나 폭력이 없었던 적은 없으니, 전자보다는 후자의 정의가 훨씬 현실적이다. 갈등과 폭력을 줄이고 줄여 최종적으로는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보훈이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평화가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라지만,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하지 않고, 양상도 복잡하다. 가령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의한 일방적이고 명백한 폭력은 더 큰 힘이 개입해 멈추게 하면 된다. 필요하면 권위 있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리고 상처는 치유하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일방적으로만 생겨나지 않으며, 그 발생 경로도 복잡하다. 폭력의 종류와 양상도 다양하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가한 주먹질이나 전쟁 같은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폭력이지만,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폭력'도 있고, 독재정치의 구조와 상황 속에서 뻔히 알면서도 횡행하는 '구조적 폭력'도 있다.

폭력이 은밀하고 교묘하게 생겨나는 탓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노골적인 폭력도 구조적 불가피성을 앞세워 정당화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든다. 그러면 피해자 쪽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과 공격을 도모한다. 그 과정에 갈등이 커지고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며 적지 않은 상처와 희생을 낳는다. 그렇게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런 일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 국가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곤 한다.

안보가 왜 딜레마가 되는가

안보(security)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전적으로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서, 대체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국방, 국제정치, 외교의 주요 과제가 된다.

문제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힘을 이용해 다른 힘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갈등도 거기서 발생한다. 안보는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행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저마다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 힘들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한다.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다시 더 큰 힘을 추구한다. 역시 저마다 그렇게 한다. 힘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지속된다. 그럴수록 실질적인 삶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안보가 '편안히(安) 보전(保)'되는 상태이기는커녕, 도리어 불안(不安)의 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힘을 키우면서 도리어 불안은 지속되거나 더 커지는 '안보딜레마'가 생겨나는 것이다.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이러한 현실을 의식하며 보훈은 어떻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보훈이 국가공동체를 위해 투신하다가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보답의 과정이라면, 보훈은 국가를 유지하고 나아가 공정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 중의 기초이다. 누군가의 아픔에 대한 연민, 더욱이 국가를 위한 투신 과정에 당한 희생에 대한 보답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치면 가족이 돌보듯이, 어떤 국민이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다 희생을 당했다면 다른 국민이, 나아가 국가가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가족 간 돌봄이 가정의 근간이듯이, 보훈이 국가를 공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근간인 것이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행여라도 보훈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단과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이념적 충돌 탓에 '호국' 유공자의 대북관이 '민주'유공자의 대북관과 갈등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같은 국가유공의 행위가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자칫 '반일'운동의 역사적 근거로만 활용되면서,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일본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제질서와 외교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평화 지향적 보훈의 길을 걸으면서,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서로가 자신만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핵심은 분명해진다. 보훈이 폭력에 의한 희생을 치유하고 곳곳에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며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넓고 깊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희망적 과제, '큰 보훈'의 길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 한 마디로 '감폭력(減暴力)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누군가 어디선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의 원인이 되는 폭력을 축소시켜가는 모습에서 구체성을 입는다. 이러한 과정은 가장 인간적이고 심지어 거룩하기까지 한 국민적 과제이다.

여기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국가가 돌보는 '사후적 보훈'은 가장 일차적인 작업이 된다.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지속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희생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즉 더 심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큰 보훈'의 길에도 나서야 한다.

'큰 보훈'은 국가유공자를 빨리 더 많이 찾아내 더 충분히 보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보답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되, 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큰 보훈'은 사후적 보상으로서의 보훈을 포괄하면서도 그만큼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보훈이다.

'큰 보훈'은 숭고한 희생자를 돌보며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형성의 길이다. 사후적 보상으로서의 보훈과 더불어, 언제나 더 큰 보훈의 이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목적론적인 실천이다. 그것은 사후적 보상보다 앞서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제적 보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희생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더 심층적이기에 '큰 보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전통적인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되(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민주유공자와 사회공헌자는 물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같은, 시민사회에 좀 더 어울리는 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와 세계를 향한 평화 지향의 길을 걸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보훈정책을 연구하고, 더 심층에서 남북이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확보해, 한반도의 평화와 연계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또한 독립운동으로 일제에게 당한 희생을 돌보며 공정한 국가를 만들면서도 일본의 보훈정책과도 만날 수 있는 더 상위의 혹은 더 심층의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게 더 크고 깊은 미래를 내다보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열어가는 길에 공헌해야 한다. 그럴 때 한국에서 나왔지만 궁극에서는 인류가 축복할 만한 보편적인 보훈의 길이 된다. 큰 보훈의 길이 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줄이는 평화의 다른 이름이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

이 글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지원 상훈유통 26년간 유공자 복지 증진 노력

제21회 보훈문화상 시상





성남시가 2019년 3월 성남시청에서 개최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전'(왼쪽). 상훈유통은 병역문화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군부대 내 독서카페를 설치해왔다. 사진은 독서카페 30호점 개관식(오른쪽).

해외독립운동 역사를 알려온 김동우 사진작가와 20년 이상 국가유공자를 지원해온 상훈유통 등이 제21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시상식은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으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자의 활동 내역.

△**김동우 사진작가**는 2017년부터 인도, 중국, 일본, 멕시코, 쿠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 250여 곳의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현장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기록해 책으로 발간했다.

지난 2019년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사진을 전시하는 등 독립운동사 관련 사진전을 개최해왔으며 부산교육청, 경기도청, 외교부 등에서 해외 독립운동가에 대한 강연 등을 통해 해외독립운동사를 꾸준히 알려왔다.

△**최종분 자원봉사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광주보훈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왔다.

최종분 자원봉사자는 광주보훈병원의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지, 말벗 돌봄, 목욕과 세발, 임종 후 장례지원 등 자원봉사를 주 1회 정기적으로 해왔다.

최종분 자원봉사자는 2015년 광주보훈병원에 완화의료병동이 설치된 이후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를 돕고 있으며, 현재 완화의료자원봉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은 지난해 전국 유통망과 상품군을 활용해 '잊혀진 독립운동가' 100인 알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GS리테일은 자사의 상품군 200만개를 통해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알렸다.

2019년에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여성독립운동가 51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태극기 역사 등 테마를 정해 독립운동가를 집중 홍보했다.

GS리테일은 또한 생존애국지사 31인의 어록을 상품에 부착하고 QR코드를 통해 애국지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애국지사와 소비자 간 소통창구를 여는 한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로 저소득 독립유공자를 지원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6·25전쟁 미발굴 전사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담은 '12260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을 실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상훈유통**(회장 이현옥)은 '보훈'을 국가 발전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1994년 회사 설립부터 26년간 국군장병 위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상훈유통은 창사 이래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보훈자녀 1,16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하기도 했다.

또한 상훈유통은 2006년부터 군부대 내 독서카페 설치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병역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훈복지기금을 조성해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200여명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독립운동교실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통한 보훈가치 함양에도 앞장서고 있다.

성남시는 민관협업을 통해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위대한 시민의 역사'을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노력해왔으며, 그 공로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생활조정수당 제도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구비서류 : 부양의무자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개인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 전화 문의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다. 지급대상 :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으면서 생활수준조사 (소득, 재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 가능

◈ 2021년도 지급기준 [매년 변동] ◈ (단위 : 원)

구분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기준금액의 50%	1,191,000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기준금액의 40%	952,800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기준금액의 30%	714,60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라. 2021년 지급금액(월) : 22만원 ~ 33만6천원(가구원 수 및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

마.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생활수준조사 → 대상결정 및 안내 →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자에 한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신청 월부터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보훈외교’ 공공외교 베스트협업상 수상

한국PR협회 해외 부문 최우수상 이은 쾌거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가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베스트 협업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1일 외교부 공공외교위원회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외교 사례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에서 국가보훈처의 마스크 보훈외교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대면 농식품 및 한식홍보 사업’과 함께 베스트협업상에 선정됐다.

공공외교위원회는 마스크 보훈외교의 선정 이유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해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전달하고, 이러한 사례가 국내와 해외 현지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에게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했다.

보훈처의 이 같은 노력에 벨기에 국왕, 미 국무·보훈장관, 캐나다 보훈부 장관 등 참전국 주요 인사들이 감사메시지로 답했고, 다수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의 인터뷰와 감사편지 등이 국내와 해외 현지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한편,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는 이에 앞서 한국PR협회가 선정한 2020년 한국PR대상 해외PR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원주보훈요양원 12월 16일 개원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강원권 요양시설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이 지난달 16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서 열렸다.

이번에 문을 연 보훈요양원은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개원하는 보훈요양원이다.

이날 개원식은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이번에 문을 연 원주보훈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9,785㎡ 규모로, 넓고 쾌적한 시설을 갖췄다.

원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에 200명, 주간보호센터에 25명이 입소 가능하며, 1인실과 2인실을 설치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4인실도 폭넓은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 감염병 위험에 대비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을 통해 보훈가족의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안락한 노후 지원과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달 16일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개관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참전용사 후손·교사 회의

제1회 월드콩그레스 온라인 개최

지난달 22개국 참전용사 후손과 후손 교사들이 주축으로 하는 학술회의인 제1회 월드콩그레스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11시부터 13일 오전 4시)까지 이어졌다.

월드콩그레스는 참전용사 후손과 후손 교사들이 참여해 전 세계적으로 참전의 의미를 고찰하고, 참전국 미래세대를 위한 6·25전쟁 역사 교육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22개 참전국 사회역사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70주년의 세계사적인 의의와 교육기반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존스홉킨스대학 캐서린 웨더스비 교수의 ‘한국전쟁, 발발 70년 후’ 주제 강의와 6·25전쟁에 대한 22개국 교육현황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작은 손길로 쌓은 15년의 세월, 든든한 내일을 만듭니다”

인터뷰 – 든든한 보훈인

전남동부보훈지청 정삼례 보훈섬김이





박순자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어드리는 정삼례보훈섬김이(왼쪽). 지난해 11월 6일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든든한 보훈인 시상식에 참석한 정삼례 섬김이와 아들 김용 씨(오른쪽).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의 한 주택, 겨울을 잊은 듯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고요한 정적을 깨는 가위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는 작은 미용실이 열린 듯 6·25참전유공자 차봉섭(87) 어르신의 배우자 박순자(84)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는 정삼례(59) 보훈섬김이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미용실을 가지 못해 자라난 박순자 어르신의 머리카락은 정삼례 보훈섬김이의 손길이 닿자 금세 단정하게 정리됐다.

정삼례 보훈섬김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보훈가족들이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자 가위와 미용 도구를 준비해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염색을 해드려왔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일도 틈틈이 해왔다. 이제는 제법 전문가다운 느낌이 물씬 풍겼다.

그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째 보훈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약하고 있다. 보훈가족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혹여나 생활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모습에는 그간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을 해왔는지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1월 든든한 보훈인에 선정된 것은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든든한 보훈인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고, 보훈섬김이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에 세 곳씩, 주 15회 어르신들을 방문하며 소중한 인연을 쌓아온 15년의 세월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 쌓인 세월만큼이나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는 가족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10여년 전 시아버지께서 고생한다며 편하게 움직이라고 자동차를 사주셨고, 아들은 든든한 보훈인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꽃다발로 축하를 전하기도 했다.

다시 나라가 당신을 부른다면 그 부름에 기꺼이 응하겠다 말하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보며, 훌륭한 분들을 섬긴다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정삼례 보훈섬김이는 매일 가족처럼 만나고 있다. 모두가 내 부모님,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보훈가족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부축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생활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청소를 해드리고,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반찬을 만들어 드린다.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바로 곁에서 말벗이 되어 친구, 자녀가 되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보훈섬김이의 본분이라고 믿는다.

“제가 하는 일이 그분들의 소소한 일상과 직결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그분들의 삶을 궤적을 생생한 음성을 통해 체험하게 되고 기쁜 일, 슬픈 일 가릴 거 없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파도처럼 제게 몰려옵니다.

그는 오늘도 오래도록 보훈가족의 손발이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쓰임새 있는 사람이,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이다.

보훈가족의 미소에서 답을 찾다

내가 생각하는 ‘든든한 보훈’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한 일이 되고,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 활동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지난 한해가 연초에 계획했던 행사와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했기에 아쉬움이 컸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걱정으로 마음을 졸여야 했다는 것이다.

지청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행복을 전하는 보훈연락선’을 기획해 운영했다. 지청 관할 내 140여개의 섬에 3,0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 주요 9개 섬에 직원들이 방문해 민원·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훈연락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제약이 많아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의 보훈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해 인천항에서 배를 타거나 연륙교를 이용해 쉬지 않고 보훈가족을 찾아 나섰다.

인천항에서 뱃길로 4시간 소요되는 백령도와 2시간 거리에 있는 연평도, 덕적도를 비롯해 여러 섬을 향하는 길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고, 특히 신규 입사한 직원들은 보훈가족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눈을 반짝였다. 장시간 이동에 뱃멀미를 하며 지쳤을 법도 했지만 보훈가족의 얼굴을 마주하자 절로 미소를 짓게 됐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쏟아졌다. 재가복지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보훈가족들에게 보철용 지팡이를 드리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하나씩의 미션을 완수해갔다. 틈틈이 어르신들의 민원을 들어드리고 처리해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현장에 도착한 모두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대로 착착 움직였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직접 와서 살펴주니 고맙다, 수고가 많다”며 격려해주셨고, 그 말에 직원들은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다.

섬을 오가며 여러 직원들이 수많은 격려의 말을 들었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10월 말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가족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부부 모두 인품이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었는데 고령으로 보행이 어려워 면사무소에서 지원해준 보행보조차를 이용하고 계셨지만 자세히 보니 보조차가 어르신의 체형과 맞지 않아 불편해하셨던 게 마음에 걸렸다.

이튿날 인천보훈지청으로 돌아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보행차를 구했고, 11월 연평도를 다시 찾아 직접 어르신께 보행차를 전해드리자 어르신의 얼굴에 함박미소가 피어올랐다. 부부가 기뻐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우리가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에는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홀몸이나 부부세대 어르신들을 매주 2시간씩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고 말벗도 해드리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어 병원동행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안부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게 전부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좋은 상황에서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현장탐방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선미 인천보훈지청 복지팀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우만·박원영·김익중 선생

호남의병, 국권 침탈에 저항해 분연히 일어나다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호남의병으로 활약했던 기우만(1846~1916)·박원영(미상~1896)·김익중(1851~1907) 선생이 선정됐다.

기우만 선생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1896년 2월 장성향교에서 최초로 호남의병을 일으켰다. 이에 나주에서도 이학상 선생을 중심으로 편제를 갖추고 기우만 선생이 일으킨 호남의병을 적극 지원했다. 장성, 나주에서 세를 얻은 기우만 선생은 광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의진을 구성해 서울로 북상할 계획을 세웠다.

박원영 선생은 기우만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자 바로 참여했고 나주에서 광주로 이동한 정성의병을 맞이하는 실무를 주관했다.

김익중 선생은 기우만 선생이 의병을 모으자 포수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한편 자신도 이에 적극 가담했고, 나주와 광주를 오가며 종군했다.

호남의병은 단발령의 철폐, 왜적의 구축, 개화정책 반대, 옛 제도의 복구, 국왕의 환궁 등을 표방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울 진출을 추진했으나 고종의 해산조칙에 따라 광주에서 해산했다.

정부는 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려 기우만 선생에게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박원영 선생에게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김익중 선생에게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이달의 6·25 전쟁 영웅 김갑태 육군 중령 (1924.10.1~1952.10.4)

피의 고지 탈환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이달의 전쟁영웅에 피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기습 공격을 하던 중 적의 포탄 파편을 맞아 쓰러져 3일 만에 전사한 김갑태 육군 중령이 선정됐다.

김갑태 중령은 부산에서 출생해 1949년 5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그는 1951년 강원도 한석산·가리봉 전투 등에 참여해 공적을 세웠다.

1952년 4월 육군 제3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장으로 부임한 그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방, 우두산 일대의 방어 임무에 투입됐다.

1952년 10월 2일 1중대장 겸 1대대장 대리 임무를 부여받은 김갑태 대위는 선두에서 부대원을 이끌며 일시 피탈당한 피의 고지(748고지)의 탈환을 위한 기습공격을 벌였고 전대대원들이 맹렬하게 고지를 향해 돌격해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김갑태 대위는 격전 중 적이 쏜 포탄 파편에 맞고 쓰러져 후송된 지 3일만인 1952년 10월 4일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1953년에는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윤봉길 의사 순국 제88주기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제88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서 열렸다. 〈사진〉

매헌윤봉길의시기념사업회(회장 명노승)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외부인사 초청 없이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약전 봉독과 어록 낭독, 추모사, 헌화와 분향, 추모가 이어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을 맞아 일본군의 상해점령 전승 경축식이 열린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수통형 폭탄을 투척했다.

윤 의사의 의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석주 의사 추모식 열려

1926년 경제침략의 본거지였던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뒤 자결해 민족혼을 일깨운 독립운동가 나석주 의사 94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나석주 의사 동상(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열렸다.

황해도재령군중앙군민회(회장 기광현) 주최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소수의 회원이 참석했다.

6·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 고 김영환 님(1928.3.30.)



○ **군 복무 내용**
- 1953.1.7. 육군 입대 (군번 9283700), 1957.11.10. 만기전역(하사)
- 춘천지구 수용대 복무 중 1953년 6월 17일~7월 13일까지 36육군병원, 63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5사단 복무 중 1954년 12월, 1955년 4월 59후송병원 등에서 공상으로 입원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우측 허벅지에 총상(배우자 진술)

■ 이명희 님(1931.5.6)



○ **군 복무 내용**
- 1952.7.1. 육군 입대 (군번 9221311), 1955.7.10. 만기전역(일병)
- 56연대에서 복무 중 1953년 7월 16일~8월 12일까지 15병원에서 공상으로 입원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작전 중 곡성에서 빗길에 차가 전복돼 무릎과 온몸에 부상을 입고 15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받음(본인 진술)

■ 고 정동은 님(1923.8.15)



○ **군 복무 내용**
- 1951.3.21. 육군 입대 (군번 0600390)
- 15경비대에서 복무 중 1951년 7월 13일~8월 6일까지 제27육군병원, 제7정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년 2월 16일 의병전역

○ **부상 경위와 신청 부상 부위**
- 좌측 흉부 관통상을 입었음(자녀 진술)

■ 필요한 제보 내용
-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 부하 등 진술
-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
-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
-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

■ 연락처 :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3, 5955

아름다운 인생



국태민안(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온 국민이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휘호에 담았다.(135X35cm)

*작가 유병리: 국가유공자로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이자 이사를 지냈다.





강릉 바닷가에 떠오르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

커버스토리 강원 강릉

가득 안은 하늘 열리는 세상

바다를 어우르며 하늘 가득 채우는
붉은 기운을 마주하는 시간
어제의 그 하늘, 하루를 지나온 그 해
다시 우리 살 하늘 그 하늘이다
우리 안고 가야할 그 태양이다

새로운 것은 마음에 담아둘 일이다
세상을 가득 안으며
이웃을 크게 보듬어 세상이 열린다
새해는 그렇게 성큼 들어서고

손이 꽁꽁 발이 꽁꽁, 수족냉증을 예방하려면

한방으로 채우는 건강

평소에도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 손발이 얼음장 같이 차갑다 못해 시리기까지 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심하면 손발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초부분입니다.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수족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히 두꺼운 양말이나 장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며,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는 열한 약성을 가진 차로 속이 찬 사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게다가 신진대사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차에 계피가루를 적당히 넣으면 맛도 있고 속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마늘 역시 냉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따뜻한 약성을 가진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뭉쳐 있는 기운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 발끝까지 미쳐 수족냉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마늘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양파 역시 수족냉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추도 대표적인 따뜻한 음식에 들어갑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손, 발, 무릎이 차가워지는 것을 개선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밖에 인삼, 계피 등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입니다.

반대로 커피나 녹차, 홍차 등은 차가운 차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을 차갑게 합니다.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 카페인이 함유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카페인 섭취와 스트레스 줄여야

족욕과 반신욕도 수족냉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 두고 하체만 몸을 담습니다.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마에 땀방울이 살짝 맺힙니다. 땀을 무조건 많이 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칫 무리하게 땀을 내면 오히려 몸의 열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20분 전후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신욕이 끝난 다음에 체온을 잃지 않도록 긴소매의 옷으로 보온해줘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늘리면 체온은 상승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력이 늘어납니다. 근육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온몸이 따듯해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손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족냉증도 완화됩니다. 그리고 늘어난 기초대사량은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합니다. 우리가 긴장할 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게 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하는 것도 수족냉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성수 부산보훈병원 한의과 부장, 한의학박사, drwaje@bohun.or.kr

신선한 과일·채소로 빈혈 예방…헌혈에도 참여를

건강한 생활 만드는 상식

혈액종양내과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질환을 꼽는다면 단연코 빈혈일 것입니다.

혈관 내의 적혈구에는 혈색소(헤모글로빈)라는 철분을 포함한 단백질이 있어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 및 혈색소의 수치가 낮아져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적혈구나 혈색소 수치가 정상인 경우는 빈혈에 의한 어지러움이 아니므로, 어지러운 증상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적 질환에 의한 것은 아닌지 다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60대 이상 빈혈, 반드시 원인 찾아야

빈혈의 증상은 어지러움 외에도 숨이 차거나, 손발의 저림, 식욕감퇴, 전신쇠약감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량이 많아서 생기는 철분 결핍이 빈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에서 철분 결핍에 의한 빈혈이 생겼다면 위나 장, 소변 등의 출혈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 소량의 출혈이라도 지속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빈혈일 수도 있지만 위암, 대장암, 방광암 등이 출혈을 유발해 생기는 빈혈일 가능성도 있어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철분결핍성빈혈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철분 뿐 아니라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비타민B12나 엽산이 부족해도 빈혈이 생깁니다. 특히 과거에 위,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암 등으로 위 절제술을 한 경우 비타민B12 결핍이 잘 발생하므로, 과거에 위 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고 빈혈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도 엽산 결핍에 의한 빈혈이 올 수 있으므로 영양불균형이 없도록 식생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소의 부족 뿐 아니라 당뇨, 신 질환, 염증성 질환이나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 올 수 있으므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빈혈 증상이 있을 때에는 혈액 검사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적혈구 용혈이 있거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빈혈, 백혈병 등 골수에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빈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빈혈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산소증에 빠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수혈을 해서 일단 혈색소 수치를 올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헌혈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혈액수급부족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공동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는 방법인 헌혈, 그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여경 광주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yeokim@gmail.com

법률 상담

코로나19로 인한 숙박 취소 시 환급

Q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발령된 후 여행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호텔을 선불로 결제했는데 위약금 없이 숙박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11월 13일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는 호텔, 펜션 등 숙박업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소비자는 통상 발생하는 위약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보훈 상담

재가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Q 저는 국가유공자인데 최근 건강악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국가보훈처는 각 보훈(지)청을 통해 보훈섬김이가 지원대상자의 집을 주1~3회 방문해 매회 1~2시간 정도 가사지원, 건강관리, 기타 편의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달의 나라사랑 영상 콘텐츠

호국의 영웅, 가족의 품으로



6·25전쟁 70주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20년 12월, 천년 고찰 범어사에서는 호국의 영웅 고 이형술 하사 귀환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만성질환 완전정복, 전립선 비대증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골치 아픈 만성질환을 완전정복해 봅니다. 해당 질환의 진단에서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만성질환, '따라와'와 함께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비둘기부대 전우들을 찾습니다



1969년 파월, 베트남 비엔호아 디안에 있는 비둘기부대 수송중대 본부소대에서 근무했던 신흥식, 홍병철, 이영춘, 송광식 전우를 찾습니다. 박홍식 전우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승국 전우를 찾습니다



1965년 해병대 청룡부대 3대대 9중대 3소대 일원이던 이승국 전우를 찾습니다. 캄남만 경비대대 시절, 친형제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그리운 전우! 이명종 전우가 찾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TV나라사랑 콘텐츠 아이디어 이벤트 당첨자

△김병현 △조연숙 △박준서 △이영인 △엄승삼 △박상번 △권경도 △이옥년 △김홍 △이성수 △박동권 △최정연 △최위숙 △김지철 △백옥자 △신동빈 △김정기 △이효길 △김정대 △하재욱

낱말 맞추기

빈칸에 답을 채운 후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필수, 상품 택배 발송용)와 함께 매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매월 6명을 추첨해 건강식품(5명), 보청기(1명)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E-mail** edit@narasarang.kr **Fax** 044)866-6771



정관장 홍삼원(5명)



버나폰보청기(1명)
보훈보청기(02-749-7995) 제공

■지난호(907호) 정답과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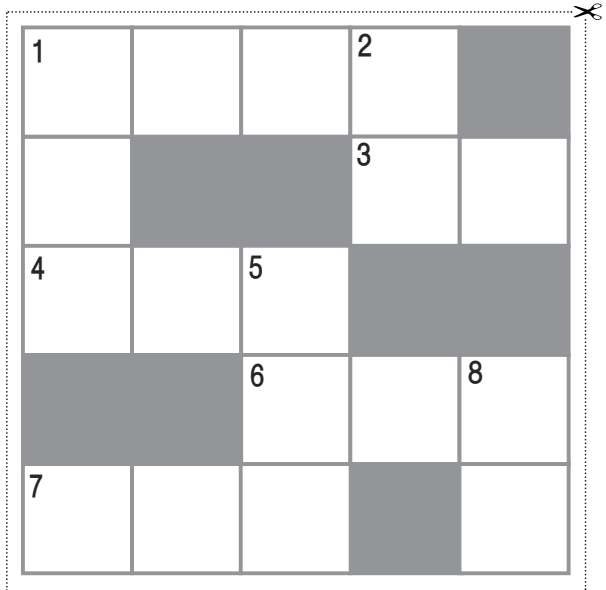
△강원 삼척시 김남수 △서울 구로구 조용인 △경기 용인시 신성태 △충북 제천시 장준기 △경남 창원시 이성군

동	지		시	
화		난	장	판
책	가	방		소
	로			리
발	등			

가로
1 새해 덕담입니다. '만 년' 동안 오래오래 사세요. ○○○강 하세요.
3 낮 열 두 시. 정○.
4 온갖 종류의 책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책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6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거나 사랑하면 생기는 병. 상○병.
7 바다에 살고 다리가 10개나 됩니다. 회로도 먹고, 삶아 먹고, 말려서 구워먹기도 합니다.

세로
1 배움에는 끝이 없죠. 보통의 학생들보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만○○.
2 쌀에 볶은 깨, 콩 등을 꿀이나 물엿에 버무려 만듭니다. 우리나라 전통과자.
5 금붕어나 비단잉어, 열대어 처럼 보기 좋은 물고기. ○상○.
8 아프면 이곳에 갑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곳.

■ 908호 문제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 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손씻기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

연말·연시 등 모임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거리 찾기**
-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

* 불가피한 대면 모임 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단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참석 중단 및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공통 방역수칙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행사 진행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